

# 한국의 문헌정보학 전제인가?

## 李鳳順 관장과의 대담\*

대담자 : 李鳳順 관장

현 한국사회과학도서관 고문

전 한국사회과학도서관 관장

전 이화여대 도서관 관장

전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교수

李壽相 사서

현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재학

현 부산대학교도서관 근무

대담일시 : 1994년 12월 5일 14:00—18:00

대담장소 : 李鳳順 관장 자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장님을 모시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관장님께서 도서관과 인연을 맺으신 과정부터 알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화여대도서관과 ‘도서관인연’이 맺어졌습니까?

제가 이화대학도서관의 사서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49년입니다. 이화여전을 1940년에 졸업하고 바로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도서관이란 도자도 모르면서 거기에 갔는데, 경성제대 도

서관에서 영문과 졸업생을 보내달라는 청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양서부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세키노 신기찌(關野眞吉)라는 분이 양서주임으로 계셨어요. 영어는 몇마디 알아들을 수 있었으며 또 영어로된 책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분류편목이란 말은 처음 듣는 것이었죠. 그래서 십진분류법을 배우고, 또 빨간책이니 파란책이니 하던 LC분류법도 알았고, ALA 목록규칙같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키노 신기찌라는 분은 일본에서 도서관학을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경성제대 도서관에는

\* 편집자주 : 이 대담기록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과창설 10주년(1984-1994)을 맞이하여 그 기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한국적 문헌정보학’ 모색의 일환으로 생산한 것을 본지가 입수하여 실는 것이다.

도서관학을 교육받은 분이 두분이 계셨는데 그들은 양서주임과 동서주임이었어요. 동서주임은 우와도코(上床)라는 분이었어요.

경성제대에는 40년에 들어가서 42년에 그만두었는데, 그만둘 무렵에는 일본책 분류도 했어요. 전쟁이 자꾸 깊어지면서 영어책은 별로고 독일책만 많이 사요. 그러니까 나는 독일어 분류는 할 수 없고 해서, 영어와 일본어로 된 책만 분류했지요. 그러다가 혼인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었는데, 이화대학이 전문학교에서 대학으로 승격하고 학교경영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역할을 해야한다고 해서 1949년에 절 불러들였어요. 그때 이화대학은 본관 일층 서쪽부분을 도서관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때 벌써 이화대학에는 미국가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도서관학을 부전공을 한 김영희 박사라는 분이 계셔서 그 분이 듀이십진분류표로 책을 정리해놓고, 또 한쪽에 레퍼런스 코너도 만들어져 있었으며,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분은 해방이 되니까 이화대학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물려받아 일을 시작했죠.

1955년 이화여대에서는 교양학부 부전공 과목으로 도서관학 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학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949년부터 이화여대에서 일을 하다가 1951년에 미국을 가게됐지요. 인디애나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끝내고 조교로 있으면서 1년간 현장실습(대학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았어요)을 한 후, 한국에 돌아온 것이 1954년 봄이었어

요. 이화대학은 53년 가을에 부산 피난지에서 서울로 왔는데, 본관이 폭격을 당해 도서관은 하나도 못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도서관 재건에 나섰습니다. 듀이십진분류표 같은 것을 쓸려니까(그때 14판이었나?) 하여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 이화식으로 저 나름대로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다른데는 다 그럭저럭 맞아 들어가지만 문학이나 어학이나 또 역사, 미술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것이 전혀 무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책을 분류하려면 우리나라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무렵에 고재창씨란 분이 있었어요. 국회도서관에 있던 분인데 그 분이 그러한 분류표를 다소 약식으로 해 놓은 것이 있었죠. 그 분이 만들어놓은 것도 보고, 일본십진분류표도 보고, 박봉석씨 것도 보고해서 역사, 문학, 미술, 이런 분야를 우선 전개해서 쓰기 시작했죠.

이화여대 졸업생 두사람을 데리고 일년을 가르치면서 일을 했는데, 말귀를 알아들을만 하니까 둘다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년이 허사였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 김활란 총장을 찾아갔지요. ‘들만 주셔서 들데리고 가르쳤더니 가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54년 봄으로 되돌아온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을 가르쳐 놓으면 혼인을 하더라도 거기에 좀 남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양학부에도 부전공으로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활란 선생님은 제말을 들으시고 정식학과는 앞으로 신설하기로 하고, 그 준비과정으로서, 55년 봄학기부터 교양학부에 부전공과목으로 도서관학 과목을 채택하도록 해 주셨죠. 이것이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최초의 도서관학과목인 셈이죠. 학점은 12학점으로 하고, 3.4학년중에서 희망자 20명

만 받겠다고 했어요. 나혼자서 다해야 되니까 그 이상은 못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명만 받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인기가 많아 더 온다고 해서 나중에는 클래스가 커졌어요. 할 수 없어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주로 영문과, 교육학과, 국문과 학생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때 공부한 사람들 중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김현기, 구자영, 홍순영, 김효정 그런 선생들이지요. 김효정 선생은 교육학과이고 홍순영 김현기 구자영 선생은 영문학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9년에 도서관학과가 신설되면서 부전공 강좌는 중단했어요.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대학에서는 학부와 함께 대학원도 같이 시작했어요.

도서관학과가 대학의 학과로서 정착되기 이전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한국 도서관(학)계의 또하나의 사건은 아마 1955년의 한국도서관협회의 창립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도서관협회가 창립되자 곧이어 실무자 강습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당시 관장님도 강습회의 강사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협회의 성립배경과 강습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회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도서관계의 젊은 분들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된 연유를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54년에 돌아오니까 6.25전란 때문에 모든 도서관들이 피해를 입고 사서들도 다 흩어지고 이러는데, 속상한 것은 이대도서관을 맡고 있어서 다른데 눈 돌릴 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뭐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경주시립도서관장으로 계셨던 엄대섭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도서관협회를 조직하

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한테 제일 급한 것이 이화대학 도서관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또 도서관협회는 도서관들이 잘된 다음에 사서들이 모여 협회를 조직하고 해야지 지금 그 일은 급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아주 그 분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엄선생님이 어떻게 집요한 분이신지 곧 제고집을 꺾고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느린 말씀씨가 끝이 없었어요. 나는 바쁜 시간이었지만, 이 양반이 오면 다 본인 이야기로 끝이 없었어요. 이분은 '도서관협회를 시작하는 것이 도서관보다 더 급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서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당신이 그래도 새로운 도서관학을 배우고 왔다는 사람이니까 한 마디라도 해서 이 사람들을 일깨워 주어야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걸 당신책임이요. 당신이 이화대학만을 위해서 공부한 것인줄 알아요. 한국도서관을 위해서 한것이지요'라고 하면서 저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하여간 그가 하는 말을 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화여자대학 도서관이 먼저입니다. 난 이걸 맡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미국을 갔고...'라고 말씀을 드려도 통 어떻게 이야기가 안되요. 제가 안만나주면 밖에 와 서서 기다려요. 그래서 그 분은 당장해야 한다하고, 저는 지금이 급하지 않다라고 계속 다투다가 결국 제가 졌어요.

이분이 하도 열성적으로 나서니까 거기에 공감했어요. 김중환 선생님, 박희영씨, 나 그리고 엄대섭씨 그렇게 우리는 이화여대 도서관장실에서 자주 모였어요. 엄대섭씨가 온다하면 안 모이고는 못 배겨요. 이래서 1955년 도서관협회 창립총회를 국립도서관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때 우리는 이전에 도서관협회가 있었던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창립총

회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이셨던 조근영씨가 회장으로 되셨지요. 아주 젊잖은 옛날 선비같은 분이죠. 그리고 제가 전무이사가 되고, 그러니까 부회장이죠. 임대섭씨는 사무국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혀 근거도 없죠. 그런데 회장이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이었기에 임대섭씨가 어떻게든 그 곳에 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의 국립중앙도서관 가보셨어요? 정문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층에 복도가 있는데, 임대섭씨는 그곳을 베니아관과 같은 것으로 막고서는 사무실을 차렸지요. 전화니 타이프라이터니 무슨 사무집기 책상이니 의자니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돈으로 구해놓고서는 사무국장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국립중앙도서관에 딱 들어가니까 정문 한쪽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팻말이 있었고, 반대 편에 똑같은 사이즈로 커다랗게 한국도서관협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근영씨가 어떻게 그리 큰 팻말을 달게 했는지 난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커다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커다란 간판을 달았으니 말이지요. 임대섭씨는 그 서쪽 코너를 막고 협회 일을 하는데 월급이 뭐 있습니까? 자기돈으로 전화받는 사람도 앉히고 그 일체의 경비를 자비로 부담했어요. 협회가 조금 클 때까지 거의 임대섭씨 자비로 꾸려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뭐 하여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도서관 실무자를 도협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야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협 주최의 강습회를 하게 되는데, 강습회 경비는 한미재단(AKF : American-Korean Foundation)이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때 강습회를 한다면 누가 와요? 어느 도서관에서 여비를 줘서 보내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세아 재단에 찾아가서는 ‘지방에서 올 사람을 다 정했는데, 이사람들한테 우리가 여비를 보내주어 오라고 그래야지, 아니면 그사람들 절대 안온다. 도서관이 재건이 되려면 그래야 된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세아재단의 도움으로 여비, 체재비, 잡비까지 몽땅 주어가면서 사서들을 달래고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안그러면 오질 않는걸요.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저럭 하면서 드디어 별관을 사무실로 얻게 되고, 그때부터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 협회 회비가 몇푼이나 걸렸겠어요. 급사아이 월급도 다 임대섭씨가 부담했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임대섭씨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지만, 도서관협회를 생각하면 저는 그 분이 협회를 일으킨 가장 큰 공로자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요즘 사람들이 좀 알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도리인 것 같아요. 도협 강습회는 대학에서 학과가 시작되기 이전의 일이 아니예요. 강습회가 도협이 없이는 될 수가 없었고, 도협이 만들어지니까 강습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단기교육이든 어쨌든 도협이 시작을 했던 것이죠. 나는 임대섭씨를 처음부터 찬양한 사람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공은 공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았어요. 밤낮 제가 바쁘다고 안 만나주면 우리집 대문앞에 와서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면 우리 아주머니가 저분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들어오시라고 했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것은 저밖에 모를꺼예요. 그렇게 집요한 분이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진력이 나도록 집요해요. 신기하죠. 왜 그렇게

도서관에 미쳤는지. 자기 재산 다바치고. 나중에 막 사이사이상(1980) 타러 마닐라에 가게 되었을 때, 자기 부인이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인데, '도서관이란 도자만 말하면 우리 마누라는 돌아왔었는데 내가 이제 도서관으로 상을 타게 되는 것도 못하고 간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 부인은 도서관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싫어했대요. 도자만 들어도.

관장님은 “한국의 도서관교육”(국회도서관보 2(2), 1965, pp.12-16,73.)이라는 글에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사이에 두 대학 공동으로 도서관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1957년에 연세대학만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다고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다 잘모르는 이야기인데, 내가 54년에 이대도서관 운영을 맡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교육이 절대 필요하다는걸 총장한테 가서도 역설했다시피, 어떻게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무렵에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연세대의 맥 엘로드(J. McRee Elrod)씨였어요. 그 당시 도서관학을 하고 온 사람은 그이와 나 둘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자주 만났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 것없이 가르칠 사람도 별로 없고, 연세대학교 이대가 가까우니까 그 중간에다가 연세-이화 연합도서관학교 즉, 연세-이화 조인트 라이브러리 스쿨을 짓자고 했어요. 그러면 연세대 학생도 오고 이화대학 학생도 와서 양쪽이 다 학과를 만드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것이지요. 도서관은 양쪽에서 같이 쓰요. 그렇게 하자고 자꾸 이야기하

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 그런 예는 미국에도 있었거든요. 테네시의 피바디, 밴더빌트, 그리고 스캐릿의 세대학 종합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성공한 케이스이거든요. 닥터 케이서(Dr. Kaser) 박사가 거기서 그걸 해서 일약 스타가 되었죠. 그런 사례도 있고 하나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한미재단의 닥터 프레이저(Dr. Mowat Fraser)를 들어서 찾아갔지요. 한미재단이 사회과학분야에서 도서관을 돕기로 했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뭐하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미재단 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힘써 미국에 있는 재단들하고 의논해볼 것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들어서 계획서를 작성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연세-이화 조인트 라이브러리 스쿨 프로젝트(Joint Library School Project)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이걸 양쪽 대학의 총장 허락 없이 어떻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카피를 해 가지고 엘로드씨는 백낙준 박사한테로 가고 나는 김활란 박사한테로 갔지요. 우리한테는 조인트 라이브러리 스쿨이라고 하니 이상적이지만, 그게 총장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것이겠어요. 그거 허락 받는데 진땀을 뺐어요. 나보다 엘로드씨가 백낙준 박사의 허락을 받아내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나는 그래도 김활란 박사님이 내가 자꾸 찾아가서 그러니까 또 그럴 듯도 하여 허락을 한 것이죠. 테네시에 있는 피바디, 밴더빌트, 스캐릿의 조인트 라이브러리 이야기를 죄다 설명했지요. 그래서 이화대학은 허락을 받았어요. 아! 그런데 연세대학에서 허락이 안 떨어져요. 고생고생하여 허락을 받아내어 때가 좀 늦었지만 가지고 가보니까 닥터 프레이저가 미국으로 귀

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가져가는 것 보다, USOM(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to Korea)의 교육담당인 닥터 우드(Dr. C. Tyler Wood)라는 분에게 넘겨지는 것이었어요. 프레이저의 말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미국재단 들고 의논하는 것보다 여기 현지에 있는 USOM이 주동이 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닥터 우드에게 넘기고 그 분은 떠났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이에 닥터 우드는 그것을 이화대학은 쪽 빼고 연세대학 백낙준 박사하고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연세대학에 단독으로 도서관학과를 설치하기로 들어서 합의를 보게된 것이지요. 그런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지요. 그것을 알고 엘로드씨는 너무 속이 상한다는 것이지요. 글썄 최소한 알려라도 주어야 하질 않겠어요. 우리가 고생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된다던가 안된다던가.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세대학만 된다던가. 우리는 도서관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문제이지 이화 연세가 꼭 조인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꼭 우리 프로그램대로 해야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시작한 것은 우리들인데 어쩔 우리를 그냥 싹 빼놓고 합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학과가 우리나라에 설치되는 게 그것은 USOM이 도와줄려고 그랬을 것이니 아뭏튼 잘된 것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러던 차에 1956년 피바디 교육사절단(Education Team)이 문교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교부와 협의를 거쳐 피바디팀이 도서관학과를 연세대에 1957년 설치하기로 하고, 그들이 실무적인 것도 담당하기로 했어요. 물론 저로서는 약간 섭섭은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도서관 교육시설이 대학내

에 설치된다는 것 그 자체가 더욱 소중한 것이지 그 밖에 다른 사사로운 감정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부탁이 왔을 때 그것은 도서관 인들을 위해 소중한고 또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기꺼이 맡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좀 뻘쪼. 나 안 가르친다고. 그렇지만 괜히 말로만 그랬었지, 속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연세대학 도서관학과 강의 맡기로 했어요. 그런데 글썄 클래스에 턱 들어가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남자학생들은 본 일이 없었는데, 남자학생들이 클래스에 꼭 차 있었어요. 정말 아찔했죠. 그것을 생각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확 들어가서 보니까 기가 막혔던 거죠. 그 때 학생들은 백린씨 이춘희씨 이재철씨 천혜봉씨 명재휘씨 등 셀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남자 라이브리언들하고 인연을 맺게 된거죠. 한과목 한학기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것은 나의 소중한 경험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피바디 교육사절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연세대학에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군요. 관장님과 엘로드씨가 구상하신 연합도서관학교를 한미재단과 논의하여 설치하려다가, 그것이 USOM의 닥터 우드한테로 넘어갔고, 닥터 우드는 연세대학의 백낙준 총장하고만 의논하여 연합 도서관학교 대신에 연세대학만의 도서관학과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군요. 그리고 마침 문교부에 나와있던 교육사절단(피바디팀으로 알려진 그들은 제4차(1956.10-1962.6) 교육사절단임)의 도움으로 학과가 설치된 것이군요.

엘로드씨는 선교사로 나와서 연세대학 도서관에

서 사서로 일하고 계셨던 분이지요. 그리고 학과설치 이후 약 4-5년간은 스와이거, 버제스 등 외국인 교수가 계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엘로드는 선교사로 와 있었죠. 닥터 프레이저로부터 연대-이대 연합도서관학교신정서를 넘겨 받은 닥터 우드가 연세대학에 도서관학과를 설치 해주겠다고 백낙준 박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피바디 교육사절단이 우리 문교부에 와 있으니 닥터 우드나 백박사는 연세대학에 학과 설치를 피바디팀에 맡기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피바디팀이 와서 한국에 도서관학과가 필요하니까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 물밑작업은 백박사하고 닥터 우드가 벌써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맡기느냐 하는데 56년에 피바디교육사절단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맡긴 것이죠.

그 당시 외국인 교수로는 엘로드, 스와이거(Ethel C. Swiger), 버제스(Robert S. Burgess), 그리고 크로슬린(Kenneth Croslin)인데, 스와이거 여사는 한국 현지에서 구한 사람이고, 도서관학 교육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사람은 버제스입니다. 그녀는 후에 온 사람이죠. 초기부터 시작한 스와이거는 엔지니어링 라이브러리언인가 뭐 그랬는데, 남편이 한국에 일하러 나오게 되어 함께 왔다가 현지채용된 것이죠. 그녀는 도서관학교육에 대해 철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연세대학의 도서관학 교육이념에 뿌리를 내리게 만든 사람은 버제스이죠. 그는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연세대학이 그 분 덕을 많이 봤죠. 스와이거의 경우는 그저 그렇게 있었죠. 나하고는 친했죠. 같은 여자끼리이고. 그러나 속깊은 데는 없

는 분이었죠. 도서관학이 이렇게 되어야한다고 절감하는 것이 없던 분이었어요.

이화하고 연세대학의 조인트 프로그램은 연세대학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었나 봐요. 엘로드가 별로 그런 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엘로드를 선교사라고 해서 자꾸 밀어내는데, 그래서 그이가 남자지만 나한테 와서 서러워 울고 그랬어요. 사실 연세대학에 학과가 생긴 이후로는 조인트 프로그램에 대해 둘다 입을 다물기로 했지요. 백낙준 박사나 닥터 우드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자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화대학이 빠지는 것 뿐인데.

모두들 피바디팀이 와서 한국에 도서관학 교육이 필요하니까, 학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라면, 미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질 않고 왜 현지에서 스와이거를 채용하였겠어요. 한참 후에 버제스가 들어왔어요. 버제스는 참 열심으로 하신 분이예요. 고마운 분이죠. 나중에 왔지만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제대로 정비해 놓은 분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이화대학 대학원에서는 더러 했지요.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영문으로 나오는 저널이 있죠. Korea Journal, 영어로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이 사실을 기사로 써낸 적이 있어요. 아마 60년대 어느 호에 찾아 보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대부터 50년대 말까지의 한국도서관학 교육의 사정에 대하여 관장님의 경험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연세대학보다 조건이 더 좋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화여대에서는 1959년에야 비로소 도서관학과를 개설하게 되

\*\* 편집자주 : Lee Pongsoon, "Education of Librarians," Korea Journal 2(3), 1962.3, pp.28-29. 이 호에서는 한국의 도서관 문제를 특집기사로 다루고 있다.

었습니다. 이제는 이화여대 도서관학과의 설치와 관련된 여러가지 배경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부전공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나는 4년제 학과를 신설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날 아침에 그냥 학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대학의 도서관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항상 도서관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1957년에 1500평짜리 조그만 이화대학도서관을 짓고 그 다음에 1959년에 도서관학과를 신설했죠. 그러니까 나는 도서관학과로서 도서관학을 가르치려면 주위에 잘된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우선 정성들여 도서관을 짓고 그러다보니까 도서관학과를 조금 늦게 신설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어요. 연세대학도 그걸 절감해서 나를 끌어들이고 그랬지만. 그래서 첫해에는 장일세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 분이 분류편목을 가르치고, 그 다음해에 김세익 선생님이 합세했지만, 그 이전에는 저혼자 이과목 저과목을 다 가르쳤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학 관련 과목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홍직 선생님, 김원용 선생님이 오셔서 대학원과정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학부에서 특강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분들을 모시러 갔는가 하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1961년에 유네스코의 International Cataloging Conference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했어요. 그때 저는 새파란 젊은이였지만, 외국의 나이 많은 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한 200여명이 몰려서 회의를 하는데 그곳에서 배우고 깨달은게 참 많았어요. 그전에도 동경에서 있었던 문헌

교환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큰 국제회의는 처음이었어요. 촌사람이 큰 구경나간 셈이죠. 가서 문헌이나 글에서 많이 보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인도의 랑가나단(S. R. Ranganathan), 미국의 루이 윌슨(Louis Wilson), 미국 카탈로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세이머 루베츠키(Saymour Lubetzky), 불란서의 마담 오노레(Madam Honore), 오스트리아의 마담 베로나(Madam Verona), 영국의 채플린(Chaplin) 등 거물들이 다 왔어요. 이렇게 편목분야의 쟁쟁한 학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 회의진행이 잘 안될 정도였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게 무엇이고 하니 한국학자, 문헌류, 또 모리스 꾸랑의 서지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모리스 꾸랑의 서지야 조금 알고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식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나로서는 한국 역사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한 나에게 문헌비고니 한국학자니 이런 것을 물어보니 한국 도서관인이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외국의 것이나 달달 외우는 라이브러리언은 다 소용없는 얘기고 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었어요. 이런 것은 정말 당해 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61년에 당장 교양과목에다가 일본어하고 한문을 필수적으로 넣었어요. 1.2학년 동안에 4학기를 배우도록 했어요. 우리나라 자료, 특히 고전을 다루려면 한문과 일본어를 모르고는 안되겠더군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한



문이 싫다고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후회하니, 탄 소리 말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홍직 선생님과 김원용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죠. 파리에 가서 당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서지학을 가르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국고전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학생들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나는 내가 가르쳤다는 졸업생이 앞으로 국제회의에 나가서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뭐 이런 식으로 젊었을 때는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르고 뛰었으니까. 그래서 두분이 다 나와서 해 주셨죠.

지금까지의 관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화여대의 경우는 연세대학보다 두가지 면에서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된 도서관을 먼저 갖추고 나서 도서관학과를 설치하고자 한 것과, 둘째는 피바디 교육시절과 같은 외국인들의 도움없이, 순수한 한국인 교수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의 특성은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학문의 토착화'와 관련이 많다고 봅니다. 그 시작이 다소 한국적 도서관학 교육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외국가서 배우고 온 도서관학을 학생들한테 그대로 넘겨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착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한참 후의 일이지만, 이재철 선생님, 이춘희 선생님, 천혜봉 선생님 세분이 도서관학 박사학위 받으셨을때, 내가 축사를 하면서 '이

제 한국의 도서관학이 우리나라에 토착화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논문을 시작으로 뿌리를 내려가면서 토착화한 도서관학을 우리가 앞으로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주장하였지요. 토착화라는 말이 거창하다면 하여튼 나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맞춰서 가르치고, 내 나라 것을 내 나라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나라 것을 달달 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여간 싫다는 걸 억지로 했어요. 그 당시 일본어하고 한문을 우리만 가르쳤는가 봐요. 그래서 학생들은 남들 안하는데 우리만 한다고 야단이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너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나라의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행하게도 한자나 일본말을 모르면 문헌비고니 조선도서해제니 모리스 꾸랑이니 규장각이니 집현전이니 이런 것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홍직 선생님이나 김원용 선생님 클래스에는 저도 들어가 않았어요. 모르는데 학과장이면 뭐해요. 그래야 밖에 나가더라도 한국사람 대접을 받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든 한국적인 문헌정보학을 가르쳐야지, 그저 남의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내세울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도서관학은 토착화되어야 해요.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또 한국적인 도서관학, 그게 나 자신도 뭘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런 어휘라도 머리에다 자꾸 찍으면서 개발해 나가야하질 않겠어요. 언제 어느 세월에 내가 아는게 많아 '한국적인 도서관학은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것은 없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적으로라도 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설 땅이 없지 않겠어요.

저는 한국적인 도서관학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도서관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며 또한 연구할 것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화대학 도서관학과가 주장한 것 중 또 하나는 현장교육을 많이 강조한 것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다른 도서관학과도 했죠. 나는 도서관학처럼 학문이름에 “도서관”이라는 글자를 붙여도 전혀 문제가 안되고, 그게 뭐 집이라고 해서 천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도서관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것은 내가 미국에서 도서관학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얻어진 것이죠. 1951년 미국에 갔을 때, 대학은 인디애나인데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하면서 일리노이대학에 떨어뜨려 주었어요. 혹시 문헌에서 많이 봤을지 모르지만, 닥터 다운스(Dr. Robert Downs)라고 있죠. 그가 일리노이대학의 도서관대학 학장도 했고, 도서관장으로도 있었던 분입니다. 도서관학 할 사람은 그 분 만나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가 ‘도서관학 전공하겠느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한테 책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라’고 하질 않겠어요. 도서관인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러면서 ‘날 찾아와서 책을 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해서 인포메이션을 줘야 그게 제대로 먹혀들어간다. 그게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설 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과 사람의 중간역할을 해야 하는데 책은 있

을 곳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어디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래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닥터 다운스를 처음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되었지요. 그래도 그이는 자꾸 ‘Don’t tell me you like books’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어른이 그저 쉽게 던진 말이 나중에는 점점 느낌이 오더군요.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독자를 어떻게 지도하고 하는 이런 것은 다 젓혀놓고라도, 도서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도서관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라이브러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서는 좋아하는 독자와 자료를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연결을 길가에서 해요? 지붕밑에서 해야죠. 그럴려면 도서관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나는 도서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밑에 들어가서 실습을 해야 그 분위기가 어떠한지, 거기서 내가 서야할 위치가 어딘지, 이러한 것을 터득하게한 다음에 도서관에 보내줘야지 않겠어요. 도서관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책도 훑아보고 심부름도 해보지 않고는, 클래스에서 그냥 배운 것만으로는 도서관에서 사람 다루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중시했지요. 그래서 3학년이 되면 실습을 시켰어요. 두학기동안이나 현장실습을 했지요. 것처럼 이화대학 도서관학과는 한국적인 것을 실습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게 한거죠. 이런 것을 가르치게 중요하질 않겠어요.

미국에 닥터 화이트라고 Library Journal에 화이트페이퍼(White Paper)라고 쓰는 분이 있죠. 그분은 인디애나대학 교수인데, 그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겠다. 그러면 현장에서 받아서 현장교육을 시켜서 써라’고 주장하질 않겠어요. 현장에서 직접 배워서 하는 것 보다 학교에서 세상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해야지 현장에 나가더라도 실망도 안하고, 또 '가르쳐서 내보냈다는 게 저 꼴이야?'라는 소리도 덜 들을 수 있으므로 나는 그런 주장에 반대해요. 그래서 그 분을 만났을 때도 'I don't agree with you'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식으로 하여간 나는 내고집 내주장이 커서 스스로 나가서 보고 배우고 또 역올함도 당해보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배우고 나간다는 사람이 배운 것만 풍선처럼 끼고 나가 가지고 그야말로 손하나 까딱 못하면 그게 뭐예요.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싫어도 실습 나가서 하고, 남이 쌓아놓고 안한 일도 해보고, 그 라이브러리언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걸 좀 나가서 봐야해요. 라이브러리 사이언스를 프랙티칼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물론 학문적인 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들어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인지 우리나라에 많은 수의 도서관학과가 설립되게 되었으며, 현재로는 30여개 대학과 그밖에 많은 수의 전문대학에 도서관학과(현재는 거의 문헌정보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시기에는 학과가 양적으로 팽창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양적 성장을 하게된 것에 대해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8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 도서관학과가 양적으로 풍성해 졌는데, 이런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하는 것은 양적으로 팽창해 진다는 것은 언제나 질적으로 열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학과가 많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질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없어요.

내가 80년대에 여러번 Library Education and Training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한번은 홍콩에서 FID/ET의 교육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82년인가 봐요. 내가 우리나라 도서관교육에 관한 페이퍼를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너희 나라는 그 많은 도서관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다 어디로 가느냐, 맨파우어 스테디를 해 본 일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맨파우어 스테디를 한 것이 없으니까 내 페이퍼에는 그저 역사적인 배경, 교과과정, 학과설립과 같은 숫자들만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력관리 연구는 하질 않고 일방적으로 사서만 많이 내보내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뒤통수를 얻어맞았죠. 그런 밖의 회의에 자주 나가야 돼요. 그래야 얻어맞고 들어와서는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와서는 이거 안되겠다 싶었죠. 대학원학생들에게 인력문제를 테마로 논문을 써보라고 했어요. 어렵다고 안 한대요. 힘들다고 안해요. 요즈음은 내가 많이 읽지도 못하고 조사도 많이 안하고 해서 우리 현실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수요와 공급에 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여 짚어보고 나가야지, 무작정 수만 늘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라면 내가 그 논문에서 맨파우어 스테디한 문헌을 참조하여 뭐가 어떻고 무엇이 애로사항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질 않았겠어요. 사실 그 때 속으로는 크게 얻어맞았어요. 없잖아요? 요즈음은 있어요?

요즘 박사학위 논문들에 통계적인걸 많이 합디 다만, 그런데서 그런 것을 시간을 들여서 해놓으면 어찌됐던간에 우리는 맨파우어 스테디를 했고, 그걸 해보니 이렇더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맨파우어 스테디를 하여도 학과설립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못하라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기반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문제시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육시켜 내보내는 졸업생이 도서관에 몇 프로가 들어가고 회사에 몇 프로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류의 스테디가 나와야 되죠. 그런 것도 없이 해마다 졸업생만 내보내어 무얼 하겠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헌정보학은 미국이나 구라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문으로서 대체로 Library Science 또는 Librarianship의 의미로서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학문이 중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 도서관학이라는 동양적인 명칭으로 도입되게 되는데, 이 학명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시설과 기관명칭 뒤에 ‘학’자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즉, 미술관학, 박물관학, 구청학, 시청학 등이 성립될 수 없듯이 도서관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마 서울중로도서관장으로 계셨던 이흥구 선생의 “도서관학의 문제점 -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 -,”(도협월보 11(7), 1970 7, pp.16-21)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논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논의되었던 문제를 다소 체계적으로 제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명의 문제에 대해 관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보학적 요소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학의 명칭은 학과명을 변경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학과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90년대에 들어 대다수 대학에서 도서관학과 대신에 문헌정보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문헌정보학이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그것을 반대하는 논문을 썼거나 강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있을 때는 이화대학에서는 못바꾼다고 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서관이 집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학문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도서관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서관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단순한 집은 아니어요. 도서관은 사서와 자료도 있고 독자도 있고 모두 다같이 공존하는 문화기관입니다. 전통적인 도서관학에서는 도서관이 그 자체가 하나의 인스티튜션으로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 사람이 도서관에 오고, 그곳에 지역문화가 보존되고, 그러는 와중에 지역사회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서관을 경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나는 70-80년대에 IFLA의 Education and Training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특히 FID/ET Committee에도 많이 참석했어요. 이유는 제가 그 کمی티의 한국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메릴랜드 대학의 와서먼 박사(Dr. Paul Wasserman)가 의장이셨는데,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 분이 은퇴하신 후 씨라쿠스 대학

의 도사 박사(Dr. Martha Dosa)가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런 회의에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1980년에는 마닐라 회의, 82년에는 홍콩 회의, 83년에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회의, 84년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텔담 회의, 86년에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회의 등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럴 적마다 도서관학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대개 결론은 도서관을 버리는게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지붕밑에서 전통적인 도서관학, 정보학, 그리고 서지학 이렇게 셋이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셋이 합쳐야 도서관의 살길이 열린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번번이 다 그랬어요. 내가 도서관을 지붕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우산(Umbrella)이라고 해요. 도서관이라는 우산 밑에 셋이 공존해서 합쳐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우리는 도서관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니 말이지 나는 그게 참 섭섭해요. 젊은 분들은 내가 노인이 되서 공연히 고집 피운다고 할 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지금 문헌정보학을 학문으로서 질서정연하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게 좀 영성하고 고집스러운 주장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는 문헌정보학과라는 것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목적은 결국 도서관 사서양성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도서관을 꼭 버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또 그 도서관은 때버리고 문헌정보학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 관리, 경영, 레퍼런스, 복셀렉션 등등 이런 것들 모두 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일할 사서를 가르치면서 도서관은 안된다는게 이게 모순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문헌정보학과에서 가르쳐서 도서관에 안 보낸다면 문헌정보학과라 해도 괜찮다고 봐

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엄연히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학과명은 문헌정보학이라야 된다는 것은 좀 억지 같고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도서관이 싫지만 내가 가르친 학생은 도서관에 가서 일해라. 그게 말이 돼요? 도서관은 집이라서 그게 학문으로는 안된다. 문헌정보학이라야 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내가 가르친 학생이 도서관에 가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도서관학을 가르친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슨 풍선처럼 뜬 구름을 잡으려는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내가 도서관에서 일하려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었고, 사람을 가르칠려면 이래야 되겠다, 가르친 사람은 와서 할일이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도서관을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출판협회같은 곳에서 독서진흥법을 들고 나와 자기네가 독서지도요원을 가르치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독서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고도서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저널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등등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나오니 이게 말이 되요? 우리가 도서관을 싫다고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판노릇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굉장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럴 수가 없죠. 언젠가 어떤 회의에서 독서진흥법을 해야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안읽는게 법이 없어서 그러느냐고. 도서관진흥법이 엄연히 있고, 그 속에 독서지도가 다 있는데 또 독서진흥법이란게 뭐냐고. 학과가 있어서 도서관에서 독서지도할 요원을 우리가 4년씩 가르쳐 내보내는데 독서지도자양성은 또 뭐냐고. 이건 예산낭비임

니다. 이것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서관인 입장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지요.

하여간 도서관학이 그렇게 싫어요? 앞으로 박물관학, 병원학 등 이런 학문을 들고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학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자리잡은 학문이잖아요. 뭐 학문이라는 그 자체가 무슨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것 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처럼 작은 어휘에 매달려 있지 말고 시야도 좀 넓히고 생각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질구레한데 막혀서 그것을 미화하고, 어휘만 붙들고 씨름하고, 이런식으로 앉아 있다는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놓친다는 것이죠. 독서진흥법이 되어 독서요원들을 다 그쪽에서 배출하면 우리는 뭘 가르쳐요? 이것은 우리 도서관인 전부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욱 그래요. 왜 그런고 하니 이런식으로 쓸데없는 것만 고집하다가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여간에 큰 고기를 놓치고 작은 고기만 붙들고 앉아있게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했어요. 아! 그런데 독서진흥법 그게 나오니까 아주 가슴이 철렁했죠. 그럴 수가 없죠. 아니 4년씩이나 사서를 가르쳐 내보내는 곳이 있는데 얼렁뚱땅해서 독서지도요원을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다행히 잘 해결되었으니 그 얘긴 그만 하지요.

도서관학과라고 하는 것보다 문헌정보학과라 하면 남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한 입학성적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학이라고 하면 타학문에 비해 사회적으로도 별로 대접을 못받는 것 같고, 뭔가 학문적으로 시시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더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화대학에서 도서관학을 59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얼마나 좋은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59년 봄이든가 어떤 여학생이 우리집을 찾아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다짜고짜 들어와 앉더니 ‘선생님 도서관학이 학문으로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서관학과에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서관학이 학문이나 아니냐 한다면 학문이 뭔지 알어?’라고 물으니까 ‘몰라서 왔죠’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문이 뭔지 가서 다 알고난 다음에 와요’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학생이 들어왔어요.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데, 하여간 도서관학이라 그러면 집에만 학을 붙여서 그런지 시시한가봐요. 학생들도 그러니 말이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죠. 미국 사람들도 60-70년대에 고민이 많았죠. 컴퓨터가 들어 오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운 젊은 사람이 많아져서 나이 많은 옛날 사서들을 몰아내고 그랬거든요. 미국도 한 시절 그런 세월이 있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도서관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우리 같이 공존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나 정보학을 따로 하는 데도 있어요. 영국의 폴리텍(Polytech)이라던가.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은 될 수 있어도 도서관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죠. 문헌정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한 도서관학이 왜 남보다 못하고 왜 학문적으로 떨어져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시카고 대학이 30년대 중반 이후에 ‘Library Quarterly’를 가지고 미국 학계하고 당당히 겨뤄서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노력을 해야죠. ‘Library Quarterly’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순수한 Scholarly Journal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서관학이 뭐가 부끄러

워요?

화제를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관장님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서 도서관학 석사를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가실 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나는 영문과를 졸업했고 또 영시를 좋아했기에, 우선 영어선생으로 나가서 가르치다가 연경대학(북경대학)에 가서 더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생각도 안했어요. 그런데 40년대는 2차세계대전이 일어난 때가 아니에요. 영어선생님은 물론이고 영어 공부한 사람을 오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영어전공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여 도서관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내가 무슨 흥미가 있어서, 또 뭐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되어서 그랬던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서 한 3년간 일하고 난 다음에 그만 두었는데, 한참 뒤인 49년에 경험이 있다고 하여 이화대학에서 부르질 않겠어요. 그래서 이화대학에 일하러 왔는데 김활란 선생님이 '대학의 심장역할을 도서관이 해야 하니까 넌 미국 가서 도서관학 공부하고 오너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칭찬벽력이었지요. 외국에 가면 영시나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학은 못하겠습니다. 영시를 전공하고 와서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라고 말했지요. '영시나 영문학을 가르칠 사람은 많지만 도서관은 대학의 생명이니 네가 나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렇게는 못하고 시나 쓰고 영시강의나 할 것이라고 계속 말했죠.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나'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세번이나 불려갔어요. 두번은 다 울고 말았어요. 세번째 들어갔는데 그때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아무리 봐도 네

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것 같으니 내가 정하겠다. 그리고 도서관학 안한다면 추천도 안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대학에서 추천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국무성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이니까 총장의 추천서 없이는 안되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지만, 그 분은 아주 단호하세요. 두번 달래면 들을 것이지 세번째도 안된다고 하니 자기가 그렇게 정해버리시더군요. 그리고 시험을 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험을 봤어요. 약 300명이 와서 시험 봤는데 63명만 붙었어요. 그 중에 여자는 나하나뿐이었어요.

50년 봄에 제1진이 떠나고, 나는 제2진으로 떠나려다가 6.25로 인해 못가고는 부산으로 내려가 있었죠. 부산의 미군 민사처에서 타이프치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미국대사관에서 50년도 교환학생으로 합격한 사람 등록하라는 공고가 났어요. 앞서 간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2진 3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병역때문에 못갔지요. 그래서 나 혼자만 수영비행장에서 떠났어요. 그렇게 하여 미국으로 가서 도서관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나는 도서관학을 한 것을 하나도 후회 안해요. 그래도 영시는 항상 마음 어느 구석에 향수처럼 남아 있고 하지만. 이제는 미국에 왔으니, 아주 철저히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한국에 나오면 대학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해야 하니까 특히 대학도서관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일체를 배웠어요. 그런 후에 한국에 나왔지요.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현장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도서관사서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누구나 도서관인으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려면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해요.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혼신을 바쳐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모든 사서들이 열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서관을 폐버렸으니까 이게 내가 어디를 향한 커미트먼트 즉, 사명감이 향하는 표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불교에서 부처님 보듯이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한 사명감이 생기지. 나는 사회의 이해도 부족하고, 도서관에 관한 주위의 관심도 낮고하니 누군가 열사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발벗고 나서야 하질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두 투사가 되고 열사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 자신이 전문직으로서의 긍지, 또 어떤 일에 대한 사명감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학도서관운동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대학도서관 건물은 이러이러할 법하다고 아주 좋은 말은 해놓고 ‘우리 도서관은 그것하고는 정반대야’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많이 생기죠. 새로운 문헌도 보고해서 도서관은 이래야 한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놓고는 현실적으로는 다른 도서관이 있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화대학을 나가기 전에는 대학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하나 짓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화대학 도서관 지을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붙었죠. 그게 사람들이 볼때는 그저 괜찮은 도서관인가보다 하겠지만, 그걸 구석구석 하여간 뭐 6000평을 운동화를 신고 어느 구석구석 거뜬거뜬 안가본 곳이 없어요. 내가 지어놓고 집들이한 후 일년 반 있고는 은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때기 전에 하자없이 만들

어 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홍순영 선생님 많이 도와 주고 하였지만,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게 뭐고 하니 집념도 있지만 내 직업에 대한 커미트먼트죠. 전문직은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저 흘랑흘랑하면 나도 30년 그냥 좋은 세월 보낼 수도 있었죠. 다행히 이 화대학에서는 총장들이 도서관을 중요시해서 오랫동안 전문직 관장으로 있을 수 있었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국안에 대학도서관다운 모델을 하나 남겨놓고 나가게 된 것이죠. 사람은 뜻이 있으면 돼요. 나는 우리 사서들에게 굉장히 섭섭한 것은 그런 커미트먼트가 없어요. ‘내가 이걸 맡았으면 어쨌든 해야된다’는 이런 것 말이지요. 나는 도서관 행정을 맡았으니까 연구를 못하게 됐어요. 행정 하나만도 못하겠는데 그래서 나는 책도 하나도 없고 논문도 없고. 그러나 나는 ‘그 도서관이 제대로 되고 또 앞으로 부끄럽지 않을 만한 대학도서관 하나를 행정인으로서 지어놓고 나간다’는데 목표를 두었지요. 논문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려면 들어앉아야지요. 밤낮 운동화신고 현장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뭐 밤이고 낮이고 없었죠. 일만 있으면 나가 보고. 일요일에는 사서들이 만나오니까 내가 또 나가서 ...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책임, 자기 직업에 대해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언젠가 이어령 장관이 ‘도서관계에는 인물이 없다’라고 날보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많아요.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분이 우리를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이고 하니 국회도서관 혹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 국가도서관으로 제대로 되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떠날려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다 빼앗기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제자들을 30년이나 가르치고도 잘못 가르쳤다고 후회하고 그래요. 나는 초기에는 그래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도서관일이 바쁘고 하니깐 한학기 1과목밖에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얼굴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니 그냥 그야말로 '날 닦아라, 날 닦아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졸업해서 사서들로 나가면 평등이 좋았어요. 여자들은 혼인하고 그러니까 뭐 좀 어렵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이론적으로 어떤 화려한 풍선을 잡고 앉아 있을려는게 아니라 두발을 땅에다 딛고 뛰어야 되요. 도서관은 안 그러면 안돼요. 그럴려면, 그렇게 나가서 일할 사람을 우리가 가르칠려면 그런 정신을 심어줘야 되요. 그게 없는데 참 섭섭해요.

30년이나 같은 사람이 대학도서관장을 하도록 하는 대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관장님은 학문적인 쪽보다 도서관현장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이화여대도서관의 지금의 모습은 많은 부분에 걸쳐 관장님이 직접 지도하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부산대학의 김정근 교수같은 분은 관장님을 평가하시기를 이화여대도서관의 오늘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야말로 '책 100권 쓰신 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김교수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처

음 들어보는 찬사입니다.

내가 은퇴할 때 문리대 학장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전무후무하게 장기 집권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야! 내가 오래 하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하는 줄도 몰랐어요. 글썽 그런 동안 도서관을 두 집이나 지었죠. 아무것도 없는데서 시작해서 그걸 키웠죠.

나는 무슨 그냥 도서관학의 학문적인 것들을 나열하고 하는 그럴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래도 전문지들은 읽었지만, 들어앉아서 공부는 한번도 못했어요. 그럴 사이도 없었으니까. 지금 돌아켜보면 나는 일에 미친 사람이었는가 봐요.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게 일에 미치다 보니까 책이나 논문 쓸 새도 없었죠. 이젠 뭐 행정마당에 발 벗고 나선 사람이 되어서 그랬지만, 그렇더라도 하여간 이화대학도서관이 저만큼 되고 남들이 요새 괜찮다고 말하니까 그래도 위로는 돼요. 그런데 나는 우리 전문직들이 또 한가지 섭섭한게, 왜 도서관장들을 힘들다고 안해요? 남자분들이 그것도. 여자가 30년을 했는데. 학교에서 안 준다고 그러면 싸워서라도 해야죠. 도서관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게 ... 이게 너무 심한 애기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난 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도서관에 인물이 없다는 말 안나오게 해야죠'라고 말해요. 내가 이화대학을 나오고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도 한국 사회과학도서관에 가보니까 또 관장직 안하고 못배기겠더라구요. 처음에 관장을 하라고 했을 때는 싫다고 그랬어요. 이화대학에서 관장 30년하고 그만둘 때 내가 해도 너무 오랫동안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말고 그저 컨설턴트로만 있겠습니다'라고 했죠. 처음에 일년 그러고 보니까 임자 없는 집

이죠. 컨설턴트로 걸도니까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젠 한 8년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알아주고 쓸만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먹어도 할려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되요. 또 물론 나는 처음부터 행정에 나선 사람이고 공부안하고 책 안쓰고 그래서 남겨놓은 업적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과학도서관에다 제가 공들인 것도 내 여별 인생을 또 거기다 바치니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정신,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사서들이지요. 왜 대학에서 역사나 고고학이나 하는 분이 도서관에 관장으로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해요? 그 사람들이 뭘 해줘요? 그렇게 걸두고 그런 것도 나는 섭섭해요. 나는 이화대학에서 악바리처럼 붙들고 늘어졌는데.

도서관장 왜 안해요? 대학에서 자청해서라도 도서관장을 해야지 그 도서관이 제대로 될게 아니에요. 그래야 도서관학과 학생도 제대로 되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직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바로 해야지, 비전문직이 뭐라 그러는데 명령이 서요? 우습게 들리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걸 이해하도록 해서 '이 도서관은 도서관 전문직이 해야됩니다'라고 아주 선언하고 나서야지요. 나는 선언했어요. 그랬는데 나한테 그만두란 말을 안하니까 철저히 했죠. 이화대학도서관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전문직이 자기 학문에 대한, 자기 학과에 대한 긍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시켜 내보내야 되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할려고 그래야 우리나라 도서관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뭐 공공도서관이 몇개면 뭐해요. 사무직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리 꼬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시골이면 어때요. 들어가서 해야죠. 난 그전에 우리 제자들을 놓고 하여간 앉으면 앉는다 그러고 서면 선다고 그러면서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

데 지금 초창기 졸업생이 그때 그 잔소리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살림 사는데도 약이 된다 그래요. 내가 잘한다는게 아니라 우리 라이브러리언들이 너무 어깨가 처져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화여대도서관을 직접 본적이 있으며, 또한 주변에서 이대도서관 내외부를 사진으로 찍어온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느 도서관과는 달리 인상적인 것은 도서관 내부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서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 플랜을 하려면 라이브러리 빌딩 컨설턴트, 즉 도서관건축 컨설턴트를 모시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그런 컨설턴트 비용을 내겠어요. 아직 플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내지는 않죠. 그래도 컨설턴트는 모셔야되고, 어떻게 할 수 없어 또 아세아재단에 갔죠. 사실 나는 아세아재단에 많은 신세를 졌어요. 재단경비로 해외도 많이 나갔고,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돈달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아세아재단 단장이 '우리는 그런 돈은 없어요'라고 그러질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큰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세아재단에서 교환교수를 불러오고, 체재비와 여비를 주어 이화대학에 도서관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였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자청해서 올 수 있는 분을 모셔오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닥터 케이서에게 편지했죠. 대학에서 날 믿어주고, 아세아재단에서 교환교수 부르는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교환교수로 나와 라이브러리 빌딩

컨설턴트를 할 사람이 없겠는가? 좀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편지가 왔는데, 당신이 직접 오신다고 하더군요. 닥터 케이스는 이대 도서관이 대학도서관으로서 벌써 61번째라고 그래요. 그전에 국내나 외국에서 많은 건축 자문을 맡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죠. 하여간 좋아서 총장한테 가서 알렸죠. 닥터 케이스가 오고, 아세아재단에서 비용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오셔서 3주년을 계셨어요. 첫째 주에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을 다 돌아다니고, 그 다음 주에는 이화역사, 보고서, 자체 백서 등등 이런 것을 달라고 하더니 그것을 보는데 한주를 보내더군요.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주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분이 인디아나대학을 은퇴하기 전의 일이었는데, 그 바쁜 시간에 오시겠다고 하고, 또 컨설턴트 비용도 안받고 하니 ... 그게 제법 비싸거든요. 설계비의 몇 %는 되지요.

그런데 그 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자기가 자랄 때 자기 어머니, 고모, 이모, 할머니 등 이런 분들이 선교회에서 돈을 모으는데, 그것이 전부 이화학당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벌써 이화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는 그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안계셔서 그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컨설턴트비는 안받는다든 것이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분이 떠나신 다음 그 프로그램은 채택되었는데, 학교에서 지정한 설계사와 나는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 프로그램의 각 문장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설명하였는데, 건축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는지 빨리 알아들어요. 그 사람에게 천자문 가르치듯이

설명하고, 또 책 주어서 읽히고 했지요. 도서관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번번이 와서 물어보고 또 내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구상하고 ... 그 사람 이화대학도서관 건축설계로 자기의 석사학위 논문까지 썼더라구요. 정림건축입니다. 내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도 경을 읽혔더니 이 사람이 아주 도서관에 흰해 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이화여자대학도서관을 설계해서 설계상까지도 땀잖아요. 나는 하여간 무엇인가 맡겨지면 되든 안되든 철저하게 해야하므로,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을 설계하게 된 것이죠. 이화대학이 잘되었다. 누가 지었느냐? 아무개가 설계했다. 그러니 자꾸 설계가 들어온다 그래요. 단국대학도서관도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지었는데, 닥터 케이스는 다 지은 다음에도 못 와보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회과학도서관에서 세미나할 때 내가 모셨어요. 오셔서 보시고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7년, 7살먹은 아들을 와서 보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7살 먹은 아들, 7년 동안 못보았던 아들을 보고 간다고 참 기뻐하셨어요. 설계사가 자기 프로그램을 잘 이해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그가 잘 이해하는게 아니라 내가 이해시킨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랬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건축이야기가 나왔기에 한마디 더 할까 합니다. 국회도서관을 처음 짓게 될 때, 도서관인들과 그밖에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건축에 대한 의논을 하는데, 첫번 회의에 나도 갔습니다. 회의에 가보니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그곳 도서관인 몇 사람을 해외에 내보내서 우선 보고 오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건 돈낭비'라고 그랬어요. 그러

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나는 ‘미국의 도서관협회에 의뢰해서 도서관 건축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게하여 프로그램대로 설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했다니, 그것이 더 돈 낭비라고 그래요. 도서관 건축 자문료가 많이 든다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이야기는 하려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도서관 일은 시작한 있어도 끝은 없다.’ 끝나고 보니 심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그저 우리나라 도서관

학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 가면서 발전하기를 빌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의 말로는 재래식 도서관학이 몸에 딱 배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같은 사람은 도서관학이 이래야 한다고 하더라도, 문헌정보학이라고 하는 풍선을 띄워 놓고 그 안에서는 재래적인 도서관학도 가르치고, 또한 이런것 저런것 다 가르치고는 ‘너 나가서 도서관에 가서 일해라, 학과는 도서관학과가 아니다’라니 이게 뭐 말이 되요? 언젠가는 제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사서교육을 하지 말고 문헌정보학을 따로 해야죠. 도서관에 옹기종기 붙어서는 도서관은 싫다고 떼내고 문헌정보학이라는 희한한 어휘만 붙들고 학생들에게 풍선만 잡게 하는 것이 교육자의 태도예요? 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날 욕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따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선국사의 원저  
필사본 영인판과  
함께  
구슬체로 풀어쓴  
우리나라  
풍수의  
정통 이론서.  
누구나  
잠심연마로  
길지(吉地)를  
찾아낼 수 있는  
한국풍수의 경전.

# 道 說 國 師

## 風 水 問 答

도선국사 원저 정판도 해설

천년 세월을  
왕실에,  
규장각에,  
민가에  
비전되어오던  
도선국사의  
풍수원리 강론  
결록  
(옥룡자유산록)  
십조통맥  
옹혈도.  
풍수연구의 필독서.

영인판합본

**구 입 점**

- 서울...영풍문고(02)399-5629
- 수원...동아서적(0331)255-6436
- 인천...대학서림(032)762-7337
- 부산...경인문고(032)654-1677
- 춘천...화문사(0361)52-1701
- 대전...문경서적(042)252-8558
- 대훈서적(042)222-7700

- 삼성서적(02)445-7380
- 행림서원(02)279-1980
- 청주...일선문고(0431)53-2360
- 부산...영광도서(051)816-9500
- 대구...화원서림(053)742-3887~8
- 전주...홍지서림(0652)88-5311
- 광주...삼복서림(062)222-0258

**지선당** TEL (02)273-0898, 272-6006  
FAX (02)277-5557